

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중국 보험업계, SOC 투자에 적극 나서

- 최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는 보험회사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SOC(사회기반시설) 투자에 보험회사 자산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.
 - 중국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시장 및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자 그동안 규제해왔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범위를 생명보험회사는 전분기 총자산의 6%, 손해보험회사는 4%까지 대폭 확대함.
 - 보험업계 역시 주식시장 침체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임.
 - 따라서 이번 규정 개정으로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던 보험회사들의 자금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SOC 투자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음.
- 대형 보험회사들은 이미 작년부터 정부 주도의 SOC 건설에 채권매수 및 지분 확보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.
 - 중국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중국생명(중화인민보험)은 작년 텐진 도시건설 채권에 투자해 큰 수익을 얻는 등 2007년 약 1,900만 위안이던 SOC 건설 채권 투자수익이 2008년에는 2억 200만 위안으로 10배 이상 증가함.
 - 지속적으로 SOC 투자에 관심을 보여왔던 타이핑양보험은 최근 수력발전시설과 베이징-상하이간 고속철도 건설에 각각 27억 위안과 40억 위안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.
 - 중국핑안보험 역시 3개 수력발전회사 지분을 각각 24~49% 보유하는 한편, 베이징-상하이간 고속철도 건설회사의 지분을 39.4% 보유하는 등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SOC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음.

(금융시보 4/13)